

## 변화되는 세계에서의 계급과 계층

김 동 준(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1. 지구화, 디지털화의 효과

#### 1) 지구적 불평등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는 두 계급이 있다는 통설이 있다. 가진자(haves)와 못가진자(have-nots)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 이분법의 신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국가나 교과서는 그것은 못 가진 자의 불만을 표현하는 불온한 생각이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낡은 생각이라고 금압을 했다.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도 없고,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어 중산층이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을 차지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는 나라는 모두가 이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라고 배웠다. 그것은 어느정도 진실이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였으며, 안정된 직장, 노후보장, 대학교육의 보편화, 소비문화의 대중화는 이들을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과격한 정치변화의 요구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비록 후발국가이기는 하나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가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했다. 일본은 원래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교육열이 높고, 빠른 시간 내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도 어느정도 분배될 수 있었고, 개발독재가 어느정도는 이들의지지 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중산층 사회의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20대 80의 사회, 즉 안정된 직장, 소득을 누리는 20%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80%의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나라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되었다. 이제 한 동안 있고 있었던 가진자-못가진자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전세계 인구 60억명 중에서 10억명이 80%의 GDP를 독점하게 되었고, 나머지 50억명은 오직 20%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60억명 중 반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다. (James D. Wolfensohn, Ending Poverty is the key to stability, IHT, September 30, 2004) 이 불평등의 선두주자는 단연 미국이다. 80년대 말 미국 노동자들은 30년 간의 번영이 가져다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의 임금 구매력은 1960년대 초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가장 부유한 10%와 가장 가난한 10% 사이의 격차가 40%나 벌어졌고, 사장의 임금은 공장 노동자의 임금의 30배에서 이제는 150배로 벌어졌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부는 1976년 당시에는 전체의 19%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40%로 크게 들었다. 이러한 정도의 불평등은 다른 어떤 산업사회에서도 일찍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sup>1)</sup>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의 전체 국민소득 대비 임금소득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59.7%인데 이는 96년의 63.4%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고, 거의 1990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97년의 3.74배에서 2003년에는 4.35배로 증가했다. 자산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0%의 소득은 97년 당시 하위 10%의 6.98배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와서는 9.12배로 증가했다.<sup>2)</sup> 한

1)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77-78쪽.

2) [문화일보], 2002.1.10

편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임금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월평균 200만 이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는 5.7%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0.4%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26.6%로 증가했다.<sup>3)</sup>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한국의 대기업은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돈 가뭄에 빈사상태에 있다. 삼성, LG, 현대차 등의 10그룹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2004년 10월 말 현재 27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53%나 늘어났다고 한다.<sup>4)</sup>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현재 신용불양정보 관리대상 기업이 9만 9096개로 전년도에 비해 1천개나 늘어났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과표기준 5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99년 당시 1천 3백 59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천 9백 10명으로 증가했고, 2001년에는 2511명에 달했다.<sup>5)</sup>

빈부의 격차는 소비지출의 격차로 곧바로 연결되었다. 특히 경제적 자본을 사회, 문화적 자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교육비 지출에서 두드러졌다. 2001년 현재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비에 월 49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하위 10%로는 6만원만 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2004년 10월 27일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 최고부유층인 월 소득 495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은 10.55%로서 전년도에 비해 0.68% 상승했으나 반면 55만원 이하 최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로 전년도에 비해 2.77% 낮아져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국 한국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 '불평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 즉 계급구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가 지구화, 혹은 디지털화의 결과라는데 대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지구화가 양극화 및 새로운 계층을 낳는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전노동부장관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다. 그는 미국 사회를 4 계층으로 분류한 다음, 이 중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한 계층과 가장 심각하게 몰락한 두 계층이 있다고 보았다. 전자는 바로 '상징의 조작자'라고 불리워지는 아이디어의 생산자들로서 그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교환과 생산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자는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전통적 노동자'들인데, 생산의 탈지역화의 최대의 피해자들이라고 보았다. 공장의 해외이전과 외국의 값싼 물건의 도입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의 입지는 극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반대로 프랑스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율은 70년대의 3%에서 90년대에는 30%까지 치솟았다.

한편 지구화로 인한 불평등은 정보화로 인한 불평등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인적 자본 획득은 주로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달려있다. 정보화로 인한 불평등 효과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자체의 불평등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보 불평등은 주로 인터넷 보급과 이용율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인구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사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접근 자체에 대한 계층간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모뎀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1996년 73만명에 달했고, 1999년에는 1천만명 선을 돌파했으며, 2004년 6월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3,000만명을 돌파하여 전인구의 68.2%가 인터넷을 사

3) [한국경제], 2001.11.5

4) [한겨레 신문], 2004.9.30

5) [www.pressian.com](http://www.pressian.com). 2004.10.1

6) [동아일보], 2001.12.6

7) 유재연, "2003년 미국 인터넷 사용의 주요 동향", <http://www.kisdi.re.kr/imagdata/pdf/10/1020042006.pdf>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연령,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인터넷 접근 및 초고속 통신망 접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대졸이상과 중졸이하의 학력별 인터넷 사용 격차는 64.7%포인트에서 82.5%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또 월소득 4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의 소득별 정보격차도 47.6%포인트에서 52.7%포인트로 늘어났고, 대도시와 군단위의 지역규모별 격차도 14.2%포인트에서 25.2%포인트로 증가했다.<sup>8)</sup> 결국 한국에서도 정보 소외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빈곤층에서는 여전히 컴맹이 많고, 저소득층 컴퓨터 소유는 고소득층의 1/4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화 격차는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다.<sup>9)</sup>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정보기술을 자신의 삶의 조건의 개선과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약하고 결국 정보 수혜층과의 소득, 삶의 기회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자 1999년말 정부, 기업, NGO 대표들이 모여서 ‘정보격차회의’(Digital Divide Summit)를 개최하여 인종별, 소득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점 해소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 2) 노동시장의 분할

오늘의 시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혹은 안정된 고용의 종말의 시대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한 기업과 조직에서 안정된 직위와 승진의 가능성과 노후 복지를 보장받는 노동자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지난 포디즘 혹은 대량생산의 시대에 와서 노동자들은 거의 전 생애를 한 직장에서 보냈다. 관리자들 역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마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공에 의해서 보수가 정해졌다. 노동자는 미래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노후 설계가 가능했고, 기업 측으로서도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대량생산 조직에서는 하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 이들을 대량소비사회의 구매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의 관념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오히려 예외가 되었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가 훨씬 보편적인 범주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측의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3년 8월 현재 784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에 달한다.<sup>10)</sup>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위인 스페인(93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48%)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임금은 통상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의 경우 80-90%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6-29%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봉급보다는 개인 보너스, 스톡 옵션, 초과근무수당 등의 명목을 붙인 주로 업무의 성과와 관련된 수입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연공서열형 평가체제와 승진체계를 버리고 이제 미국식의 성과중심주의, 연봉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나이, 직급에 관계없이 역대 연봉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10%의 고액연봉자와 90%의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잘나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노동시간에

8) [http://www.kgnews.co.kr/leader.asp?db=ITHealth&dclass=900&c\\_num=73875](http://www.kgnews.co.kr/leader.asp?db=ITHealth&dclass=900&c_num=73875)

9) [중앙일보], 2001.12.6

10) 김유선, [노동시장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41쪽.

대한 경직성 역시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업들 역시 더 이상 임금의 폭을 줄이고, 하위직 임금을 높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특히 단순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되고, 그들에게 부여되던 기업차원의 각종 복지 혜택은 축소되었다. 단순노동자와 숙련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과거처럼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여지는 더욱 축소되었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기업국가 즉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내에서의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조직노동의 대항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도 일국단위로 발생하는 국가, 사회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새로운 계층

### 1) 신 부르주와

지구화,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는 이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르주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르주와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메릴린치가 컨설팅 업체 캡 제미니와 공동으로 실시해 2004년 15일 발표한 세계 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금융자산이 110만달러 이상인 자산 순자산보유 개인(HNWI)은 770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7.5%나 증가했다고 한다.<sup>11)</sup> 그 중에서도 홍콩(30%), 인도(22%)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한국도 18%로 증가율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메릴린치는 전세계 HNWI의 재산은 28조 8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7%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증가할 경우 2008년이면 이들의 재산이 4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에서도 벤처 붐이 일어서 일확천금을 노린 벤처기업가들이 많이 형성되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도 닷컴(.com) 기업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형성되어 신층 부르주와 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생산보다는 주로 주가를 올리는데 치중하여 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기업사냥, M&A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엔론 회계 스캔들처럼 이러한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의 축적 방식에 대해 큰 경종이 울렸고, 한국에서도 벤처 원조로 불려진 매디슨 몰락 등 주가를 통한 가공의 부의 축적에 대한 착시현상에서 깨어나는 진통이 있었다.

결혼은 계급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한국에서도 재벌은 혼맥을 통해서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삼성가는 동방, 라이프, 동아, 미원, 엘지 그룹과 각각 혼맥으로 얽혀있으며, LG는 대림, 벽산, 극동, 두산, 현대, 한진, 금호 그룹과 혼맥으로 얽혀있다. 그리고 이들 재벌가는 정치권 그리고 조선, 동아 등 언론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재벌가는 정치권과 주로 혼맥으로 얽혀 있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들 간에 혼맥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아제 한국의 자본가 계급이 특정 다른 영역의 권력 층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그들만의 내부적 결속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르주와의 카르텔 형성은 초등학교의 인맥 쌓기에서도 나타난다. 강남지역에서는 소득과 학벌에서 비슷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서로 묶어주는 것이 유행이다. 아이들은 생일파티도 함께 하고 같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 축구교실과 같은 취미활동도 같이한다. 심지어는 같은 병원 출신 자녀들의 모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sup>12)</sup> 이들 강남족들은 강남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미혼녀들의 경우 결혼 후에도 강

11) [연합뉴스], 2004.6.16

남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계급구조화가 진척되면서 부르주와는 다른 층과의 접촉을 점차 차단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타워 펠리스다. 타워펠리스는 한국의 신흥 부르주와의 생활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다른 주거지와 달리 타워 펠리스는 건물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동마다 30층, 혹은 34 층은 입주자 공동시설로 꾸며졌는데, 이곳에는 연회장, 헬스 클럽, 독서실, 등의 호텔급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 외부손님을 위한 게스트 룸도 따로 마련했다. 그리고 각 동 2층에는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동동세탁실, 클럽 하우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파트 초입 상가에는 사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이 있다. 이 건물에는 바토드를 소지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이미 청약과정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청약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폐쇄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보보스 바람이 불면서 고학력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한 곳에 몰려살기 시작했다. 청담 힐로 불리워지는 강남의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 편에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곳에는 ‘S 노블’, ‘신 귀족’으로 불리워지는 집단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고급 주택가 사이로는 멋진 카페와 레스토랑, 의상실, 화랑 등이 즐비한 새로운 명소가 되었으며, 주변에는 화랑도 많이 들어섰다. 그리고 피부관리, 격락맛사지, 네일 케어 등 전신을 돌봐주는 미용실, 보드숍, 최고급 요리학원들이 따라서 들어섰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조계, 의료계, 회계사 등 전문직과 펀드매니저, 증권사 영업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등 연봉 2억 이상의 전문직이라고 한다. 이들은 리즈칼튼 호텔의 VIP 회원이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구매한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압구정 동을 이끌었던 오렌지 족과는 달리 가치관도 명확하고 직업도 확실하다고 한다.<sup>13)</sup> 주로 세계화 분위기 속에서의 아이디어와 기술, 벤처 붐을 타고 성장한 신 부르주아 층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골드칼라라 부르고 있다.

신흥 부르주와는 우선 서구적인 생활방식 그리고 고급 소비를 통해 자신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한다.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는 외국의 휴양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스파(spa)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서구식 스탠딩 파티가 유행한다. 공연티켓 예매도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KBS교향악단 개인 회원 비율도 강남서, 서초구 거주자가 VIP 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중 고생들 미국의 사립학교 패션이 유행이고, 2.30대는 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다.<sup>14)</sup> 서울 소재 성형외과의 무려 64%인 140개가 강남, 서초 지역에 몰려 있으며 피부과는 전체의 33%가 이곳에 몰려있다. 몸은 계급이다. 이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여성들에게도 날씬한 몸매는 부의 상징하는 코드가 되었으며, 거꾸로 비만은 사회적 소외층을 상징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2) 신노동자

90년대 이후 가장 뚜렷한 현상은 탈물질적 노동의 증대다. 노동은 이제 이전처럼 물질적 형태의 상품 제작에 투입되기 보다는 서비스, 문화상품, 지식 혹은 의사소통과 같은 비물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일에 주로 투입된다. 탈물질적 노동은 주로 디자인, 컨셉, 계획, 전략, 계약,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하는 노동인데, 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12) [중앙일보], 2001.1.29

13) 문소영, “‘명품’ 휘감은 청담 힐의 ‘S 노블’들”, [뉴스 피플], 2000.7.6

14) [중앙일보], 2002.117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노동은 라이시가 말한 상징적 분석적 서비스에 속하지만, 대부분은 자료 입력과 워드 프로세싱과 같은 단순 업무,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더 고급노동인 웹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포함한다. 또 하나의 탈물질적인 노동은 의료, 육아, 가사 등의 가족의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들이다.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이 시장화되면서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물질적인 노동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물질적 노동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낮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그때그때 필요한 노동을 충원하려 하기 때문에 다소의 노동자는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이제 모이면 정치이야기 대신에 재테크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한다. 이들은 신바람 나는 일이 없고 똑같은 일상과 논쟁이 반복되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회사의 지점장인 “반기마다 한 번 쫓리는 직원들의 명단이 나온다”고 잘된다는 회사도 틈만나면 감원이니 불안하다”고 말한다. 40세의 은행원 역시 길어야 10년 더 근무할 텐데 무엇을 할지 답이 안나온다고 말하고 있다.<sup>15)</sup> IMF 경제 위기 이후 동료들이 사정없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회사원들은 “살아남으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어학공부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지식생산 사회에서 생산의 수단은 분명히 자본이다. 그러나

### 3) 신 빈곤층

셜만(Shulman)은 그녀의 책 [노동의 배반: 저임 노동력은 어떻게 3,000만의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가]에서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4명 중의 한명인 3000만명이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의료 고용 등 어떤 보장도 없고 육아를 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연성도 얻을 수 없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6)</sup> 제조업 일자리의 축소와 유연화된 고용 형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에서는 2002년 현재 의료보험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436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240만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직장의 상실과 의료보험의 상실은 언제나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약 1200만이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걱정할 적이 있으며, 그 중 32%는 한, 두 번은 배고픔을 겪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380만 가구가 가구원 중 어느 한사람이 끼니를 거를 정도의 배고픔을 경험했다고 한다.<sup>17)</sup>

한국에서 자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만 하더라도 인구 10만명당 14.1 명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19.9명까지 치솟았다. 200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 1천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왔다. 하루에 30 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이것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전인 199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증가한 것이다.<sup>18)</sup> 자살급증의 가장 주된 요인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 급증,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급증, 사회안전망의 절대부족으로 해석되고 있다.

15) [조선일보], 2004.8.9

16) Ann Arbor News, October 6, 2003.

17) AP, November 2, 2003

18) 김태경, “땅부자가 살찌면 서민은 죽어간다”, 오마이뉴스, 2004.9.24,

결국 하위층(underclass) 혹은 새로운 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이다.

## 5. 계급없는 계급사회?

### 1) 계급의 종언?

골드소프가 말한 것처럼 이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위치와의 연관성은 더욱 느슨해 졌다. 한편 벡(Beck)은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더 '무계급적'인 것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현대의 세계 자본주의는 계급없는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즉 세계화된 경제질서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 하락을 '계급적인 것'으로 체험하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과 고용안정성을 크게 불안해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지 피고용자들 혹은 노동자들만의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온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속한 계급만의 것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경제 위기 하에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은 단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문직, 관리직, 혹은 일부 경영자들까지 포함한다. 한국에서도 IMF 위기 당시 겪은 일이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 사장들도 노숙자로 전락한 예가 있고 기업의 중간 간부 층에서도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안정된 고용관계가 무너지고, 임시직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특정한 조직이나 직장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따라서 과거의 노동자들이 느꼈던 자신의 생애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피고용자들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우선 급격한 사회이동 특히 하강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졌으며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의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계층, 계급에 대한 귀속감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불평등이 계급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체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내에서도 표준화된 업무가 점 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피고용자들은 회사와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쌓는데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이제 미국 MBA 자격 취득, 국제재무분석사, 선물중개사, 증권분석사 등의 새로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장에 대한 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30%가 30대 직장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안정된 고용의 상실로 인한 계급결속력의 와해는 주로 육체 노동자, 그리고 사무관리직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노동자 계급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즉 하강 이동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최상위 부르주와 계급의 지위는 거의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놀란(Brian Nolan) 과 휠렌(Chris Whelan)은 노동계급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육체노동자 일반은 이러한 경제변동과 전반적인 불평등화 경향의 최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하강이동은 모든 계급에서 동일한 비율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제변동이 무계급화의 징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룬펜프롤레타리아화 하면서 전통적인 계급귀속성을 상실하고 개인화되는 징후로 봐야하며, 상대적으로 부르주와의 계급지위는 더욱 안정화,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계급귀속성의 약화는 주로 노동자계급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19) [한겨레 21], 1999.11.18

## 2) 계급정치의 와해?

이미 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전통적 노동자계급이 사라지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계급정치의 약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클라크(Terry Nichols Clark)와 립셋(Saymour Martin Lipset)는 최근까지 이러한 점을 가장 주목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우선 서비스 노동자의 증대와 육체노동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노동자계급이 노동자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서구 사회민주당이 더욱 더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것도 노동자들 내부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들은 각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나라에서 계급적 균열이 악화되고 '후기 물질주의적 이슈'라고 부르는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계급과 투표행태와의 연관성이 가장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면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계급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설명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뿐만아니라 노동자의 탈물질주의적 지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주목하는 학자들 역시 환경주의, 인종차별주의, 여성주의 등의 가치의 등장과 더불어 계급중적인 이슈가 점점 주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인종, 성 등의 새로운 사회적 균열요인이 점점 저 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계급정치가 특히 취약했던 미국에서는 2004년 대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도덕적 요소가 경제위기나 전쟁 이슈를 압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계급 소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하우트 등(Mike Hout, Clem Brooks, and Jeff Manza)은 육체노동자의 감소는 분명히 뚜렷한 현상이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19세기적 계급모델이 현재의 사회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1975년에서 1990년 사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계급투표행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에서의 계급이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계급소멸/계급존속 논쟁은 이미 1950년대에 이미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논쟁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긍정/부정을 포함하는 가치지향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

20) Terry Nichols Clark and Seymour Martin Lipset,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1